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67호 (2014-46) 발행일 : 2014. 11. 21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한국과 일본 미혼인구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일본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비교를 위하여 한국 미혼 인구에 대한 조사 실시

이성교제 비율 및 희망비율, 결혼의향, 이상적인 여성의 삶, 자녀양육 등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표면적인 차이 이외에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및 빠르게 변화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 일본의 경제상황변화로 인한 소비문화가 이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미혼인구가 이성교제,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단계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임

한국여성은 대체로 일을 하면서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성호  
인구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보다 시기적으로는 늦게 변화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인구동태와 공통점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합계 출산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약 10년 정도 먼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의 정도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본고는 '이삼식 외(201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편 '결혼·출산 행태 및 가치관에 관한 한일간 비교'의 주요 분석 결과 일부를 발췌·수정보완 한 것임.

-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하회하게 된 시기는 일본이 1974년, 한국이 1984년이고,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23.3%<sup>1)</sup>,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11.3%임<sup>2)</sup>

○ 한국과 일본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이 출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통점과 함께, 만혼 · 비혼화 현상 지속 및 그에 따른 출생률 저하가 이어지고 있음

- 혼외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2010년 데이터를 보면<sup>3)</sup>, 노르웨이(55%), 스웨덴(54.7%), 아일랜드(64.1%) 등과 비교해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은 2.1%<sup>4)</sup>, 일본은 2.2%<sup>5)</sup>로 출산이라는 행위는 대부분 혼인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초혼연령(SMAM<sup>6)</sup>)은, 양국 모두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한국 남녀의 초혼연령 상승세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남
- 생애미혼율<sup>7)</sup>은 한국과 일본 모두 2000년 이후 급증하여, 2010년 일본남성의 경우 20.1%로 5명 중 1명, 여성의 경우는 10.6%로 10명 중 1명이 미혼 상태이고, 한국의 생애미혼율 자체는 아직 일본보다는 낮으나 최근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임

<표 1> 한일 남녀의 초혼연령(SMAM)과 생애미혼율 추이(1970 ~ 2010년) (단위: 세, 명)

연도	남성				여성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초혼연령	생애미혼율	초혼연령	생애미혼율	초혼연령	생애미혼율	초혼연령	생애미혼율
1970	27.2	0.2	27.5	1.7	23.3	0.1	24.7	3.3
1975	27.5	0.3	27.7	2.1	23.8	0.2	24.5	4.3
1980	27.4	0.4	28.7	2.6	24.2	0.3	25.1	4.5
1985	28.0	0.7	29.6	3.9	24.9	0.4	25.8	4.3
1990	28.7	0.6	30.4	5.6	25.6	0.5	26.9	4.3
1995	29.6	1.0	30.7	9.0	26.3	0.8	27.7	5.1
2000	30.9	1.8	30.8	12.6	27.5	1.4	28.6	5.8
2005	32.1	2.7	31.1	16.0	28.9	1.7	29.4	7.3
2010	33.2	5.8	31.2	20.1	30.2	2.8	29.7	10.6

출처: 한국: 1970~2005년은 김승권 외(2006)<sup>8)</sup>에서 재인용하였고, 2010년은 필자가 산출하였음.  
일본: 주2)와 동일

○ 즉,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미혼 인구를 결혼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 교체하는 상대 및 결혼할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혼과 관련된 생각 및 태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1) 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 (2014). 인구통계자료집.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3) OECD Family Database.  
4) 통계청 (2013). 2012년 출생통계(확정).  
5) 주2)와 동일  
6)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의 약자로, 인구정태통계(statistics of population statics), 즉 인구센서스를 이용하여 계산됨. 기존의 초혼연령이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미혼자가 배제되는 편향(bias)이 있었으나 이 초혼연령은 그러한 편향이 보완된 수치임. 따라서 일반적인 초혼연령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7) 50세가 되었을 때의 미혼율로, 45~49세의 미혼율과 50~54세의 미혼율을 평균한 수치임.  
8) 김승권, 전광희, 김태현, 이성용, Hiroshi Kokima, Toru Suzuki, Ryuzaburo Sato (2006).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이성교제 및 결혼, 그리고 자녀양육 등에 관한 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일본의 정책을 취사선택 및 반면교사로 삼아 시사점을 얻을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의 「제14회 출생동향 기본조사(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보고서 자료(2010년 조사)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조사를 한국에서 실시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과정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분석
  - 일본: 조사대상은 2010년 국민생활기초 조사의 조사지구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840 조사지구 내에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부부 7,847쌍(응답자는 아내, 즉 기혼여성)과 18~49세의 미혼 남녀 10,581명
  - 한국: 조사대상 표집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 인구총조사의 지역별(대도시와 기타 도시), 연령별, 경제활동 유무별 분포에 따라 만18~49세의 미혼남녀 1,500명과 기혼(유배우)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화 조사가 이루어짐

## 2. 미혼인구의 이성교제 상황 및 교제의향

### 가. 이성교제 상황

- 교제이성이 없는 비율은 한국남성이 66.2%, 일본남성이 73.8%, 한국여성이 64.4%, 일본여성이 64.5%로 양국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제 중인 이성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일본 남성이 교제하는 이성이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성인 친구도 없는 비율은 일본남성에서 높게 나타나 초식남(草食男)<sup>9)</sup>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일본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음

〈표 2〉 한일 미혼인구의 이성과의 교제상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교제이성 없음		교제이성 있음	약혼자 있음	잘 모름/무응답	
		친구인 이성도 없음	친구인 이성 있음				
남성	한국	100.0( 882)	49.8	16.4	29.9	3.9	-
	일본	100.0(5,040)	63.8	10.0	18.9	1.6	5.7
여성	한국	100.0( 618)	48.4	16.0	30.4	5.2	-
	일본	100.0(4,276)	53.1	11.4	27.5	2.8	5.2

자료: 한국: "2013년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제14회 출생동향 기본조사(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보고서

### 나. 이성교제 의향

- 현재 이성과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미혼인구 중 한국남성의 교제 의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한국 남녀(남성: 64.9%, 여성: 56.5%)가 일본 남녀(남성: 53.5%, 여성: 49.8%)보다 교제를 희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성과의 교제의향을 35세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35세 이전과 이후에 양국 모두 교제의향 비율의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양국의 여성들은 35세 이후에 교제의향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9) 초식남은 2006년 10월 13일 발행된 니케이 비즈니스에서 深澤真紀(후카사와 마키)가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로써, 이성간의 연애와 육체적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남성을 말함. 이 개념은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후에 한국에서도 초식남 열풍이 불기도 함.

〈표 3〉 한일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미혼인구의 교제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교제희망	교제비희망	잘 모름/무응답
남성	한국	100.0 ( 584)	64.9	35.1	-
	35세 미만	100.0 ( 451)	65.2	34.8	-
	35세 이상	100.0 ( 133)	63.3	36.7	-
	일본	100.0 (3,216)	53.5	44.3	2.2
	35세 미만	100.0 (2,252)	53.1	44.9	2.0
	35세 이상	100.0 ( 964)	54.8	42.5	2.7
여성	한국	100.0 ( 398)	56.5	43.5	-
	35세 미만	100.0 ( 336)	60.4	39.6	-
	35세 이상	100.0 ( 62)	39.8	60.2	-
	일본	100.0 (2,269)	49.8	47.7	2.6
	35세 미만	100.0 (2,269)	49.8	47.7	2.6
	35세 이상	100.0 ( 584)	39.4	57.2	3.4

주: 한국여성의 35세 이상의 샘플 사이즈는 62명으로서 1명이 변동될 때마다 변동폭이 1.6%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자료: 〈표2〉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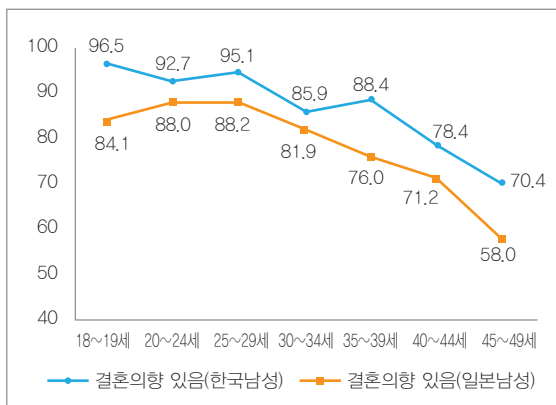
### 3. 미혼인구의 결혼에 대한 태도

#### 가. 결혼의향

- 남성의 결혼에 대한 의향은 한국남성은 90.6%, 일본남성은 82.0%로 양국 모두 높지만 한국남성이 일본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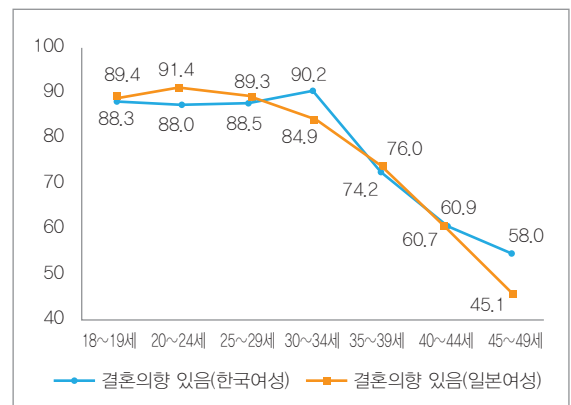
○ 한국 남성은 30세를 전후하여 어느 정도 큰 감소폭을 보이다가 35~39세에 약간 증가하고 그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 남성은 30세 전후를 기점으로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45~49세의 결혼 의향을 비교하면 한국 남성이 70.4%, 일본 남성이 58.0%로 동 연령에 있어서는 한국 남성의 결혼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1] 연령별 결혼의향 (한일남성)



자료: 〈표2〉와 동일.

[그림 2] 연령별 결혼의향 (한일여성)



- 여성의 전체적인 결혼에 대한 의향은 한국여성의 85.8%, 일본여성의 84.3%가 결혼의향이 있음을 나타냈고, 이는 한국남성보다는 약간 낮지만 일본남성과는 비슷한 수준임

○ 앞서 살펴본 이성교제 의향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미혼여성은 35세 전후를 기점으로 결혼의향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나. 결혼의 이점

- 한일 미혼 남녀 중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한국 남성이 가장 강하고 일본 남성이 가장 약하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총 응답자는 한국 남성이 81.7%, 일본 남성이 61.7%로,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여성이 71.7%, 일본여성이 73.1%로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표 4〉 한일 미혼인구가 생각하는 결혼의 이점 유무 (단위: %, 명)

구분		전체	있음	없음	기타
남성	한국	100.0( 882)	81.7	13.8	4.4
	일본	100.0(5,040)	61.7	34.5	3.8
여성	한국	100.0( 618)	71.7	22.7	5.7
	일본	100.0(4,276)	73.1	23.8	3.1

자료: 〈표2〉와 동일

-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점의 내용으로는 일본 남녀는 ‘자신의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 결혼의 큰 이점이라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한국 남녀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상대가 생긴다’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의 이점으로 한국 남녀는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과 함께 ‘현재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상대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일본 남녀는 ‘자신의 아이가 생긴다’는 것과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최대 이점으로 생각함

〈표 5〉 한일 미혼인구가 생각하는 결혼의 이점 내용 (단위: %, 명)

구분	전체	경제적 여유	사회적 인정	정신적 의지 처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활	자녀 출산	성적인 만족	생활의 편리	부모로부터의 독립	부모안심 및 주위 기대 부응	기타	무응답	비해당	
남성	한국	100.0( 882)	10.9	9.3	52.3	27.0	21.1	4.9	9.9	5.2	16.3	-	0.5	
	일본	100.0(5,040)	4.1	12.7	31.0	12.1	31.6	1.4	4.7	3.6	16.5	0.6	4.2	34.5
여성	한국	100.0( 618)	13.1	5.8	47.6	23.3	17.6	1.1	7.0	7.6	14.6	0.2	0.2	28.3
	일본	100.0(4,276)	15.2	7.1	29.7	15.7	43.5	0.3	2.3	5.9	19.7	0.7	3.6	23.8

주: 중복응답이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표2〉와 동일

다. 결혼의 장애

- 현재 교재상대가 있거나 언젠가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 미혼인구 중에서 결혼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을 보면, 일본 남녀가 한국 남녀보다 상대적으로 결혼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결혼에 장애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네 그룹 중 한국여성이 가장 약하고 일본여성이 가장 강한 경향을 보임

〈표 6〉 한일 미혼인구가 생각하는 결혼의 장애 유무

(단위: %, 명)

구분		전체	장애있음	장애없음	기타
남성	한국	100.0( 207)	50.7	49.3	-
	일본	100.0(4,134)	65.1	28.3	6.6
여성	한국	100.0( 143)	49.0	51.0	-
	일본	100.0(3,603)	68.4	26.6	5.1

주: 한국은 현재 교재상대가 있는 경우 응답, 일본은 언젠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응답 내용임  
 자료: 〈표2〉와 동일.

- 결혼에 장애가 있다고 인식하는 미혼인구의 최대장애 내용을 보면, 양국 모두 결혼자금, 즉 경제적인 문제가 최대 장애라는 인식이 강함. 한국의 경우는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주거 문제가 그 다음 장애 요인인 반면, 일본은 직업 또는 일의 문제가 결혼자금 다음으로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 한국 남녀의 경우 결혼자금과 결혼생활을 위한 주거 문제, 일본 남녀는 결혼자금과 직업 또는 일의 문제로 차이를 보임

〈표 7〉 한일 미혼인구가 인식하는 결혼의 최대장애

(단위: %, 명)

구분	전체	결혼 생활을 위한 주거	결혼자금	부모의 승낙	부모와의 동거 또는 부양	학교 또는 학업상의 문제	직업 또는 일의 문제	연령상의 문제	기타	잘 모름 / 무응답	
남성	한국	100.0( 105)	19.0	49.5	5.7	1.9	7.6	9.5	4.8	1.9	-
	일본	100.0(2,693)	11.3	45.2	6.9	5.9	10.1	12.5	3.7	2.5	1.4
여성	한국	100.0( 70)	15.7	32.9	8.6	4.3	14.3	14.3	5.7	2.9	1.4
	일본	100.0(2,463)	7.8	37.6	12.1	7.5	12.8	12.3	3.5	3.2	2.9

주: 결혼장애요인으로 주거요인이 결혼자금 요인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전화조사의 특성상 '결혼자금'에 주거관련 자금이 포함된다는 인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표2〉와 동일.

## 4. 미혼인구가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삶

- 전반적으로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는 재취업 코스와 '결혼하여 자녀도 가지고 일도 계속한다'는 양립코스를 이상적인 삶으로 꼽아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지만, 성별과 연령별로 선호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삶은 다소 차이를 보임

○ 대체로 재취업 코스가 양립코스보다 조금 더 선호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35세 미만의 한국여성은 재취업 코스(33.7%) 보다 양립코스(43.1%)를 더욱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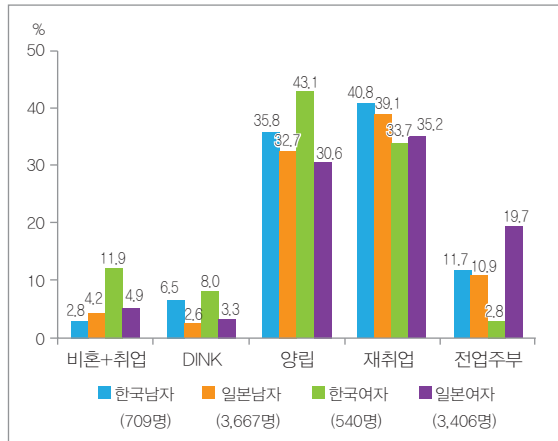
○ 한국남성과 일본남녀는 35세를 경계로 양립코스와 재취업 코스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 이 줄어든 선호도는 비혼+취업코스와 DINK코스의 선호도 증가로 옮겨가는 패턴과 달리, 35세 이상 한국여성 그룹은 재취업 코스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DINK 코스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35세를 기준으로 모든 그룹, 특히 일본여성 그룹에서 DINK코스 선호가 증가하는데 반해, 한국여성은 감소를 보여, 결혼을 한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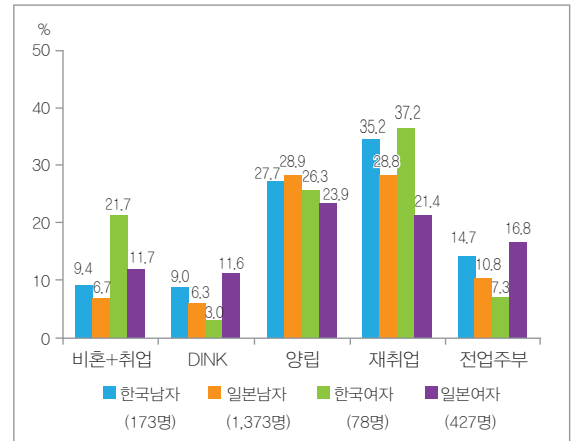
○ 다른 그룹에 비해 한국여성은 비혼+취업코스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전업주부코스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낮은 반면, 전업주부를 선호하는 비율은 일본여성이 가장 높음

- 35세 미만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재취업 코스를 전반적으로 선호하고는 있지만, 양립코스와 재취업 코스에 대한 남녀의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국남성은 여성의 재취업 코스를 더 선호하고 여성은 양립코스를 더 선호하며 그 차이 폭도 넓게 나타나 한국의 미혼 남성과 여성의 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양국 여성 모두 35세 이상 그룹에서 비혼+취업 코스의 응답 비율이 증가해, 35세 기준으로 이성교제의향과 결혼의향의 감소를 보인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임

[그림 3] 여성의 이상적인 삶 (35세 미만 미혼)



[그림 4] 여성의 이상적인 삶 (35세 이상 미혼)



주1: 비혼+취업코스: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 DINK코스: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두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 양립코스: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일을 계속 한다; 재취업 코스: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 전업주부 코스: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여 그 이후 일을 하지 않는다  
 주2: 모름, 무응답/기타 응답은 그림에서 제외되어 %의 합이 100보다 작을 수 있음  
 자료: <표2>와 동일

## 5.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들의 가치관은 어린자녀가 있을 때 엄마가 일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본여성보다 한국여성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남
- 적극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한국은 미혼여성 90.9%, 기혼여성 94.2%, 일본은 미혼여성 75.3%, 기혼여성 69.5%의 분포를 보임
- 어린자녀를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에 대한 지지는 한국은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더욱 강한 지지를 보임

<표 8> 한일 미혼·기혼여성의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단위: 명, %)

구분	전체	가능한 자녀가 어릴 때에는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미혼여성 (35세미만)	한국	100.0( 540)	36.1	54.8	7.0	1.5	0.6
	일본	100.0(3,406)	26.2	49.1	16.4	5.1	3.2
기혼여성	한국	100.0(1,498)	57.8	36.6	4.5	1.1	-
	일본	100.0(6,705)	19.2	50.3	18.8	7.7	4.0

자료: <표2>와 동일

## 6. 결론 및 시사점

- 한국과 일본 간 차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사회 · 문화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의 여러 차이점 중,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삶 부분에서 일본여성보다 한국여성이 일에 대한 열망이 더 큰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및 빠르게 변화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이성교제 비율 및 희망비율, 결혼의향 면에서 나타나는 일본남성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는 일본의 경제상황과 더불어 형성된 소비문화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의 버블 경제 붕괴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오면서 안정을 지향하는 소비패턴을 중시하는 문화가 이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한국도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젊은 층의 소비패턴이 일본과 비슷하게 변해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성교제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일본과 유사하게 소극적인 태도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요인이 결혼의 장애로 나타났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성교제에 있어서도 큰 장애요인이기 때문에<sup>10)</sup>, 이성교제와 결혼에 있어서 미혼인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저출산대책에서 젊은 층의 자립을 위한 비정규직 대책 및 취업지원을 명시

○ 생애주기적인 단계(이성교제 · 결혼 · 출산)의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을 저출산대책의 틀 안에서도 고려해야 함

-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엄마가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국여성은 양립코스를 여성의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영아기 자녀를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 출산 후 여성의 경력이 유지 · 보장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어린 자녀를 여성 본인이 키우는 것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시설의 확충 및 관리가 필요함

10) 조성호 (2014).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7월(213), pp. 14-23.

집필자 | 조성호 (인구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187  
 변수정 (인구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371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